

월간 중현



'79 1월호

주를 우러러 보는 신앙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25:1의 말씀이다. 또한 이 말씀은 금년도 단기 수련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였다.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지난 연말 교회일꾼들을 임명하시는 어느 주일 설교말씀을 통하여 내년도 우리교회는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높이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다.

마 6:33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인다. 1월은 한해의 시발점이다.

옛말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다. 백두산 천지못에서 물방울이 갈라질 때 조금만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방울은 끝내 동해로 들어가고 말게 된다. 그 반면 조금만 서쪽으로 기울어진 물방울은 황해로 흘러 들어가고 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떤 철인은 말하기를 옷을 입을 때 첫단추를 바로 끼워야 다른 모든 단추도 바로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첫출발도 그와 같다고 하였다. 참으로 첫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바로 출발 시키기 위하여 신년벽두부터 천국일꾼을 위한 훈련하는 기회를 마련 하였다. 교역자를 비롯하여 장로, 교회직원, 제직, 권찰, 급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단기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모든 일꾼들로 하여금 일꾼으로서의 감사감격하는 마음과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으며 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과 작오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부흥회 저녁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결코 연례적인 행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행사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비록 기간이 너무 짧은감이 없고 내용이나 기타 분위가 면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는 치드라도 이 행사에만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고 또 봉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훈련은 철저히 받으면 받을수록 유익하다. 그것은 군대를 생각하여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또 군대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체험적으로 느껴보아 알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알기는 잘 알고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할 때가 더 많고 엉터리 없이 가르칠 때가 적지 아니 하지만, 그러나 배우기는 싫어하고 훈련 받기는 싫어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 그리고 핑계가 많은 것이 인간이다.

지난 12월 17일 주일 저녁에 성경학원에서는 1978학년도 졸업식과 아울러 제2학기 수업식을 거행하였는데 그날밤에 현모씨라고 하는 분이 노력상을 받은 것이 기억난다. 그 분은 운수업을 하시는 택시 운전기사이신데 택시를 몰고 다니며 영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또한 성경학원에 나와서 성경말씀을 공부하는 성경학원 수강생이시다. 택시를 몰고 다니며 영업을 하다가 저녁 7시 가까이 되면 차를 교회쪽으로 몰고 오셔서 그로부터 두시간 동안 성경공부를 하고는 다시 운전운을 계속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이를 금치 못하였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우리는 곧잘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없다.

롬12:11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갈라졌나이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리워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 시인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만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교육에 있어서 교사교육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다. 그의 지상 생활은 전도와 교육의 연속이었다. 전도하여 복음을 믿게 한 후에는 교육을 통하여 그를 제자로 삼는 일 (making disciples)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교사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또 교사 자신이 어느 정도 배우는 일 (learning before teaching)에 열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이다. 일꾼된 자는 그가 교사이든 제직이든 성가대원이든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교육을 자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1979년도는 처음 출발부터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연구 노력하므로 항상 주를 우러러 보는 신앙 가운데서 풍성하신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앞에 바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주간)

충현교회 3 대 목표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
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
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제 7 권 제 61 호

월간 충현

■ 1 월호 차례 ■

〈권두언〉 주를 우러러 보는 신앙 / 주간.....	2
〈이달의 말씀〉 새 일을 앞에 놓고 / 김창인 목사.....	4
〈당회장의 새해계획〉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때	6
〈특별기고〉 변천하는 중국대륙에 대한 기독교자의 사명 / 풀카우프만	8
〈선교주일특집〉 너희는 가라 그리고 보내라.....	11
· 해외선교사들의 새해인사	18
〈편집실 칼럼〉 멋 / 고재원 집사	20
〈찬송가 감상〉 네 집을 예수님께 / 김중석 강도사	20
〈도서정보〉 12월 중 구입한 도서.....	21
〈책소개〉 능력있는 기도 / 이승근 강도사	21
〈신설부서 소개〉 화기애애한 가운데 개강예배 / 새가정부.....	22
〈신설부서 소개〉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 선교부.....	23
〈해외 교우의 창〉 충현지를 받을 때마다 물려드는 충현의 모습들 / 권석기 집사	24
〈이달에 만난사람〉 운전하며 성경학원 수료 해 / 현홍식 집사.....	25
· 시편에서 즐기는 주간의 만나	26
〈독자의 글〉 기독교인의 사명과 책임 / 장철환 집사	27
〈주교소식〉	28
〈교회소식〉	30
〈이렇게 답한다〉 입신은 성경적인가 / 김하진 목사.....	33
〈1월의 행사〉	34
〈편집후기〉	34
〈오늘의 우리기도 · 1월의 특별기도 제목〉	35

표지설명 : 1979년의 한해를 우리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새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게 되는 만큼 우리 모두의 모아진 힘을 필요로 하
는 한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사 12:1-2



새 일을 앞에 놓고

성경 / 수 1:1-9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1979년 정월 초하루, 금년 첫날을 맞이하여 여호수아의 일생을 거울로 하여 새 일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감사와 회개와 결심을 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일을 시작하면 절반은 성공되었다는 말인 줄 압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성공의 출발입니다. 1979년 첫발을 내딛는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갈 것이냐? 방향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365일의 세월, 1초도 쉬지 못하고 가야 하는 인생, 확실한 방향을 정해 놓고 계속해서 나아 가는 금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365일을 사시는 분은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갈 것이고 생활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선한 업적이 쌓여질 것이고 욕심 따라 세상풍속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악마에게 속아서 악마의 위를 따라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자신은 영원히 지옥불의 고생을 받아야 될 죄과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돈, 권세, 건강을 어느 방향을 향해 무엇을 위해 쓰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양심의 눈이 어두워 나만이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고 나만이 잘 살겠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멸시한다면 그 사람의 지식, 건강, 권세, 돈은 없는것 보다 너무 못한 손해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이며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년 우리의 향할 방향은

첫째, 하나님부터 사랑합니다.

나의 몸을 지어 주신 하나님,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지옥 인생에게 독생자를 주시어 악마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세상 떠나면 천국을 예비하셨다가 환영해 주신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1979년이 됩시다. 하나님께 욕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합니다.

둘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딸 예쁜 옷 입히고 영양있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가정교사까지 두어 공부시키는 것 좋지만 먼저 그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영혼이 죄악에 매몰되지 않도록 신앙인격을 키워줍니다. 또한 내 부모님 영혼,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범죄하는 아들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되 영혼부터 사랑하여 그 인격을 악마의 사슬에서 풀어 놓습니다.

세째, 우리의 후대를 사랑합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끝나는게 아니고내 아들·딸, 내 후대, 내가 죽은 다음의 후대를 위해 일해봅시다. 산에 나무를 잘 키워 놓으면 수고는 자신이 했으나 자손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람을 바로 키워 복을 물려 주는 금년이 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부터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후대를 위하여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봅시다.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은 교회에 바쳐서 전도하고 선교사업하고 천국일꾼을 키우고 모든 재산의 십분의 이, 맘을 희생적으로 끊어 예배당을 지어 봅시다.

다음은 선한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걸어 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담대하게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능의 중 모세가

떠났다고, 큰 일이 앞에 있는 것 어찌 할꼬? 낙심하지 마라.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있다.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출발하는 군인은 어떤 무기를 다 준비해도 좋으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없는 군인은 어떤 무기를 가져도 집니다. 성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담대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입니다.

“아무데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만 믿고 담대합니다.

연세 높은 모세와 아론은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자기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고 뿔대던 바로의 세력을 하나님만 의지하던 인간이 볼때 지렁이 같아 보이던 두 영감의 세력이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는 처음에는 우스워 보여도 결과는 놀라게 좋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담대는 처음에는 굉장한 것 같은데 몇일이 못가서 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나 무슨일이나 담대하게 해 봅시다.

둘째, 법대로 갑시다.

자동차가 빠른 것도 법대로 길로 가니까 빠른 것처럼, 회사원은 회사의 법대로, 학생은 학교의 법대로, 나라의 백성은 나라의 법대로, 성도는 교회의 법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없이 움직이는 것, 용기는 좋지만 용기는 법을 통해서만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지혜없는 용기는 만용, 미련입니다. 교회에도 엄연히 당회가 있으니 당회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질서는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질서없이 짓는 법은 없습니다. 인격구성도,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선한 일, 하나님 사랑 하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조심하며 갑시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죽음의 강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케를 메고 들어 서서 무사히 건너 갔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법케를 메고 여리고를 돌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큰 성공을 두번 했습니다. 그후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니 세상에 겁낼 것 없다.” 이것은 믿음이요 담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성이 있는데 아이를 점령하기 위하여 정탐을 보냈습니다. 돌아와 보고하기를 “여리고는 어른이고 아이라고 하는 성은 아이와 같이 조그만합니다. 온 백성 함께 가면 수고스러우니 삼천명 용사만 택해 보내면 문제없습니다.” 라고 했다. 교만한 마음은 경솔을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

도 안하고 삼천명을 보냈더니 패배를 당하여 칼과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왔는데 36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일은 계속 성공해도 작은 일을 업수히 여기면 실패합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큰 일도 담대하고 조심하고 작은 일에도 담대하고 조심합니다. 담대·질서·조심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범사에 질서있고 언제나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네째, 잘못된 것은 정리하며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은 조심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유대족속 한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 헌금을 중간에서 도적질해서 가져다 숨겨 놓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물건을 도적하는 너희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고 하시고 떠나 가셨던 것입니다.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할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교만하고 경솔했다. 너희 가운데는 내 물건을 도적한 자가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적한 자를 잡아다가 공의롭게 처치하니 다시 복을 주셔서 온 가나안을 정복하고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나큰 일을 앞에 놓고 수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앞에 바친 헌물중에 일전이라도 잘못 쓰는 사람이 섞이면 본인은 망하고 교회에는 손해가 옵니다. 인정상 사랑으로 우물주물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잘못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이리하여 새 일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합니다. 범사를 담대하게 법대로 조심하면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시다

내 뜻과 정성을 모으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66 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불가능을 기도로 가능케 하는 해로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시기

◇... 지난해 연말, 미국이 중공과 수교를 맺는다는 뉴우스가 각 신문의 머리를 장식했 ...◇
 ◇... 다, 새해에의 국제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하며 격 ...◇
 ◇... 동하는 세계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변화속에서 1979년을 맞는 우리교 ...◇
 ◇... 회는 이미 기공을 본 성전건축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하는 일, 해외선교, 북한선 ...◇
 ◇... 교, 국내전도를 확장하고 알차게 키우는 일, 교육의 제문제등 이룩해야 할 일들이 ...◇
 ◇... 교회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다. 1978년 교회설립 25주년을 보내고 30주년을 바라보 ...◇
 ◇... 는 우리 교회의 1979년의 모습을 당회장 김창인 목사에게서 들어본다. <편집자> ...◇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복음화하기 위한 운동이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전도에 힘써 온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또 1976년에는 전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전도에 힘쓰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특수훈련을 통한 전도요원 양성

북한 선교교회에서는 이제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내전도에 임하려 한다. 전도용으로 차량을 1대 준비하여 강원도, 충청남북, 전라남북등 지방의 산간 벽지를 순회하며 전도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다. 이를 위해 특수훈련을 통한 전도요원을 양성하려고 한다. 우리 중현기도원에서 금식법, 침술, 배낭을 지고 밤에 백리를 달리는 훈련등을 3개월 단위로 2차에 걸친 훈련을 시킬 계획이다. 산골 벽지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 현지인들과 생활을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신앙교육 이외에도 생활훈련을 철저히 한 소위 특공대식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야 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남이 가지 않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곁해서 훈련도 되고 하는 좋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나는 몇명을 선정하여 산골에 몇 교회를 개척중에 있다. 그중에 40세대가 있는 산골에 개척중인 어느 교회는 약 40여명이 출석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

각할 수 있지 않는가.

이처럼 도시집중에서 보다 산골의 버림 받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보람있고 참된 민족복음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수훈련은 남북통일시를 대비한 일

이처럼 특수훈련을 시켜 전도요원을 양성하고 산골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중의 또 하나는 휴전선이 열리는 날을 대비해서 이다. 언젠가는 휴전선이 열리고 남북이 통일될 터인데 그때에 이북의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미리 준비가 있어야 된다. 평안히 지나던 사람들만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물론 이런 일은 전 기독교인, 전 한국교회 전체가 맡아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모임에 회장이니 고문이니 하여 머리가 많고 뒀는 자가 적다. 우린 그저 묵묵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해 나갔으면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에 적극 협력하여 민족복음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수 있기를 바란다.

해외선교면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쏟을 것이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0여년이 지나는 가운데 점점 체계를 잡아 가고 있다. 해외선교면에서 제일 중점을 뒀야 하는 것은 역시 선교사의 양성문제이다. 일할 일꾼만 충분히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해외



에 있는 교회들을 엄선하여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연결을 가질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을 일정기간 그곳으로 보내어 외국에서의 목회경험을 쌓으며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하는 주일학교 선교부의 역할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기획부를 신설-비서 기용할 터

금년은 또한 우리 교회 안으로도 큰 일을 치루어야 할 해라고 생각한다. 새 성전건축을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까지 완공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되어 힘을 모아야 된다. 기도의 힘을 모으고, 충성의 힘을 모으고, 물질의 힘을 모아 새 성전 건축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모두가 매주일 보면 알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본다. 초창기의 우리 교회를 짓던 형편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무서운 열심으로 성전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의 출석교인은 200~300명이었다. 오늘은 그 당시의 10배가 넘는 교인이 아닌가. 모두가 힘을 합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교회에 당회장 직속으로 기획부를 둘 계획이다.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 현황 파악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러고 보니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면밀한 계획등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 되어 온 비서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1~2명 정도 선정하여 일을 하려고 한다. 비서가 생기면 일을 하면서 기획부 신설 문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획부가 타부서에 누를 끼치거나 해서는 안된다. 교회 전반에 관한 문제들, 특히 연구, 개선,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교역자사택-기도원 근방에

앞으로 교역자 사택은 현재 기도원 근처에 지을 예정이다. 교외에서 떨어져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깨끗한

정신으로 매사를 생각하게 하며 또한 건강에도 유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새 성전과의 거리문제가 있으나 차편으로 30~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지난해에 국제정세를 볼 때 하나의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중공의 덩소평이다. 지난해 말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맺으므로 앞으로 국제정세는 추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에 해외여행을 통해 보고 생각한 여러가지들을 종합해 볼 때 덩소평이 평화를 위장하고 자유진영들과 손을 잡고 중공을 속히 근대화 시켜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완전히 자유진영쪽으로 돌아설 것인지, 이는 덩소평이 청년시절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불란서에서 공부한 점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어찌하던 우리나라로서는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망해

현재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만들고 있지만 북한도 곧 따라 올 것이다. 어떤 무기경쟁, 군비경쟁은 늘 비슷하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큰 우리의 무기라고 본다. 이제는 나 혼자만 생각하면 망하는 때가 됐다. 금년엔 우리 중현교회도 시야를 더 넓혀야겠다. '나',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우리'를 위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금년엔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도도 나, 나의 가정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폭 넓은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매달 정기제직회시에 그달의 기도제목들을 정하려고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해외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금년엔 남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로 가능케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변천하는 중국대륙에 대한 기독교의 사명

폴 카우푸만 목사

(Paul E. Kauffman
Asian Outreach, President)

오늘날 세계교회는 선교사상 최대의 도전적인 사명에 직면하게 됐다. 그것은 오래동안 닫혀 있던 중국대륙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됨으로 이 중공에 대한 선교가 큰 도전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사실이다.

바울사도가 고린도교인들에게 에베소의 사정을 말한 것이 오늘 중국대륙에 적격한 말씀인 것이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功効)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라고 말하였는데 오늘의 중국대륙의 문은 그야말로 광대한 문인 것이다. 전 인류의 1/4이 가득 차 있는 광대한 문인 것이다. 또한 공효를 이루는 즉 효과적인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대륙 백성들의 고갈한 상태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했던 모택동의 이념이 완전히 실패하므로써 열린 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택동의 봉쇄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택동의 죽음은 중국대륙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의 잘못된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말았다. 모택동은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여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그렇게 하므로 결국 세계를 정복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공상은 중국대륙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교육적인 기반과 과학적인 바탕을 완전히 파괴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마스주의에 완전히 순복하는 충신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후진국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동안에 중국대륙은 모든면에서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오늘 중국대륙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라졌다. 그들은 농업·교육·과학 그리고 군사면에서 급속한 발전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모택동의 봉쇄정책을 중지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중국대륙을 변화시키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게 되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와같은 변화를 오늘 세계의 기독교회들에게 세 가지 도전적인 사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세계의 기독교회들은 중국대륙을 바로 이해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회는 중국대륙의 그릇된 정책에 너무 강하게 반항한 나머지 중국대륙을 진실되게 바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두려운 존재로만 알고 가까이 알아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학자나 기독교 전도사 중에 중국대륙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중국대륙을 알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 결과는 중국 대륙안에 있는 10억에 가까운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오히려 중국대륙 백성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복음적인 사명도 없는 불신세계에서는 중국 대륙을 깊이 연구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대륙에 대하여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모택동의 사상과 마스주의는 중국대륙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을 아는가? 지금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은 1949년에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은 이래 어느 때 보다는 중국대륙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적인 사명을 위하여 중국대륙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는, 세계교회는 중국대륙에 대해 복음적인 사명을 절감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사회에 대하여 멸망을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악인을 경고할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책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홍콩섬에서 바라본 중국대륙〉

신자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 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가 중국대륙에 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공산치하에 있는 중국대륙의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신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였던가를 묻고 계신 것이다.

세째로, 세계교회가 중국대륙 전도에 동참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중국대륙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에게 중한 책임을 주신줄로 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1. 기도의 사명이다.

한국교회는 기도에 열심있는 교회로 세계에 이름이 나 있다. 한국의 새벽기도·산상기도·통성기도 등 참으로 세계교회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10억 중국대륙의 영혼을 위하여 중재적인 기도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 사정에 의하여 중국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인가. 온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중국대륙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2. 중국대륙의 전도를 위하여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람이 중국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중국대륙은 엄청나게 급속히 변하고 있다. 전에 같으면 수년이 걸려도 안 될 일이 지금은 하루사이에도 변한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 온 것은 중국을 통해서 인 줄 안다. 또 성경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 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면에서도 중국에서 받은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빛을 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과거에 진 신세를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각성은 내일의 중국대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중국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데 한국을 이용하시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일이래도 문이 열리면 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를 위하여 광둥어를 배우고 북경어를 공부하고 중국을 연구하는 한국기독교인이 많이 있는가.

한국교회가 중국대륙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3. 내게 있는 것을 다 바쳐야 한다.

한국은 근년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급성장을 주신 것은 세계선교와 중국대륙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갚을 것이요, 많이 받을 자에게는 많이



〈우리는 모든 만민을 위해 기를 들어야 한다〉

달라 할것이니라” (눅 12:48) 라고 하시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여야 한다.

지금 대공산권 선교기관에서는 광, 싸이판, 필리핀, 제주도등의 송신소를 통하여 중국대륙 전역에 복음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한번에 15분 방송으로 일주에 2 회하는데 1 년간 드는 비용이 약 600 만 원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또 과거 10 년동안 중국대륙에 보낼 새 성경을 출간하고 있다. 1974 년에 이미 신약성경은 출간되었고 구약성경은 1979 년 4 월경에 완성할 계획이다. 이 성경을 30 만부 출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순전히 인쇄비만 약 5 억 4 천만원이 든다. 1500 원이면 중국대륙에 보낼 성경 한권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중국대륙에 성경을 보내기가 쉬워졌고 문이 넓게 열리므로 점점 더 쉬워져 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를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축복받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국대륙의 선교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 원고는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가 보내온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1979학년도 제 1 학기 학생모집

성경학원에서는 1979 년도 제 1 학기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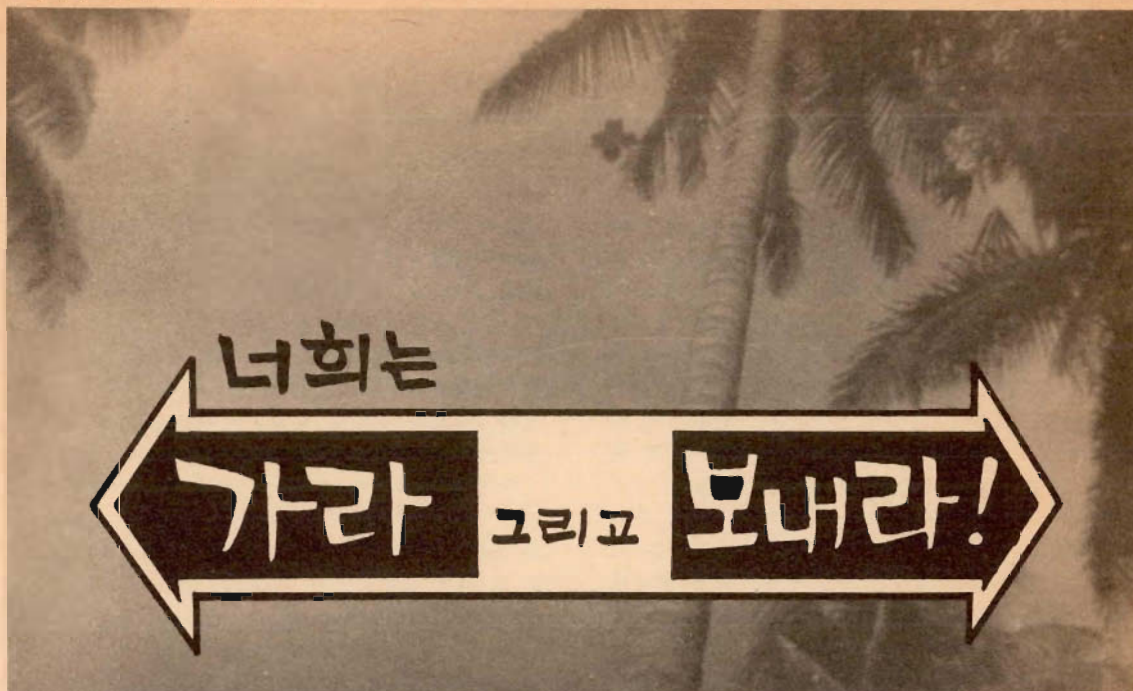
1. 보통반

- ① 입학자격: 본 교회 남녀 세례교인(로타 교회 교인은 본 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② 모집인원: 60 명
- ③ 1979 학년도 제 1 학기 교육과정 및 강사
교과목: 이사야서 · 다니엘서 · 스가랴서 · 묵회서신 · 고린도서 · 계시록
강사: 김희복목사 · 이종윤목사 · 신성종목사 · 이성봉목사

2. 연구반

- ① 입학자격: 본 교회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고등 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타 교회 교인은 본 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② 모집인원: 30 명
- ③ 1979 학년도 제 1 학기 교육과정 및 강사
교과목: 출애굽기 · 요한복음 · 헬라어문법 · 영어성경 · 기독교윤리 · 교회사
강사: 정상우목사 · 신성종목사 · 이종윤목사 · 김하진목사 · 이준교강도사
3. 모집일시: 1979 년 2 월 25 일까지
4. 개강일시: 1979 년 3 월 5 일(월)

충현 성경학원



- ☐... 우리교회가 해외선교에 문을 연 것은 1968년 11월 24일 해외 복음선교회 ...☐
- ☐... 가 창설되고 부터이다. 금년들어 11년에 들어 선 해외 선교가 이제는 안 ...☐
- ☐... 정되어 가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 ☐... 또 1975년에 제정 실시하고 있는 선교주일이 금년에 어느덧 5 회째를 ...☐
- ☐... 맞게 된다. 월간충현에서는 선교주일을 맞으며 지난 10여년간의 우리교회 ...☐
- ☐... 해외 선교의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
- ☐... 가를 모두가 잘 알기 바라며 선교주일 특집을 엮어 본다. (편집자) ...☐

해외복음선교회의 출범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를 맡아줄 것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해외선교에 점차 깊은 관심을 기우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교회는 해외선교의 꿈을 품고 그 실행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 해외선교를 위한 준비

그러는 중에 1964년 10월에는 대만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게 되었고 1965년에는 제직회 부서의 선교부를 설치하여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1967년에는 여전도회에서 선교부를 신설하고 대만의 선교사업을 돕기로 하여 해외선교에의 기운이 점차 확대되었다. 선교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연결이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구체화 된 것은 1968년도에 청년부 면려회에 선교부를 신설하게 되면서였다. 이는 그 당시 지도교역자 김의환목사가 청년들에게 선교정신양상을 위해 선교사들의 전기등의 서적

소개 및 선교를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그와같은 행사들에 직접 참여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발의되었던 것이다. 이 선교부흥회는 우리교회 전체에 해외선교 기운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이 선교부흥회를 열면서 “우리는 다같이 한국교회의 외적부흥을 인정하고는 자랑하나 그러나 어딘지 내적인 침체와 둔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지극한 받기만 하여 부풀었을뿐 주는 데서 오는 기쁨과 축복을 재물라서 그런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자라났으니 이제는 키워온 일꾼들을 내어 보내고 뒤에서 잘 밀어 주는 일을 하여야 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청년부 주최로 선교를 위한 특별부흥회를 열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고 기쁜일인 줄 압니다”하며 이제는 해외로까지 주는 교회로서의 탈바꿈을 시사하였다.

연 4 일동안 열린 이 부흥회는 「땀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청년들의 사명감을 불러 일으키고 온 교인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부흥회기간에 청년부 회원들은 수

■ 선교주일특집 ■

개월간에 걸친 준비로 해외에 파견된 한국 선교사의 활동사항,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한국 주재 외국 선교사의 대한 각종 통계, 선교에상지에 대한 통계, 선교활동을 하는 외국교회의 현황들을 내용으로 한 선교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2. 창립총회 - 1968년 11월 24일 오후 3시

이같은 해외선교의 꿈이 싹터 1968년 6월 30일과 7월 14일에 열린 당회에서도 “해외복음 선교사업을 위하여 본 당회산하에 이의 기구를 조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발기위원은 오중락·위영환·김광철·김기정·김창배·이동규·이옥순·박봉주·이현실”로 위촉하였다. 이에 발기위원들은 이해 8월에 「물질 문명의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세계는 그들의 영원한 행복과 지상낙원을 꿈꾸며 쾌락의 자장가를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불안과 절망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창설취지문을 채택하고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와 회원모집을 계속했다.

2개월에 가입된 80여명의 회원들을 창립회원으로서 1968년 11월 24일 오후 3시 2층 대예배실에서 「해외복음선교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초대회장에 김광철장로, 부회장에 위영환장로, 이옥순권사, 서기 최석주장로, 회계 이창준집사의 임원들이 선출됐다. 또 조천일목사를 초대선교사로 추대함으로써 해외복음전도 사업과 지도자 양성 및 선교정신의 배양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선교의 문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초대선교사로 추대된 조천일목사가 1970년 1월 세계대학생선교회의 참석과 선교계 시찰 차 3개월정도에 예정으로 미국에 갔으나 개인적인 학문 연구관계로 미국에 계속 머물게 됨에 따라 9월에는 급기야는 우리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선교사파송 - 6개국에 8명

조천일목사의 선교사파송계획이 무산되어 계획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해외복음선교회를 본대로 목적으로 선교회 활동을 확실히 해 나가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1970년 4월에는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 최경식목사가 우리교회에서 1년정도 목회 훈련자 협동목사로 취임하였고 5월에는 김순일 태국선교사의 임시 귀국을 계기로 태국 선교 상황을 담은 선교사진전을 열어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의 고백을 늦추지 않았다.

1. 제 2 대선교사 - 인도네시아로

미국의 선교사 파송이 여의치 않게 되자 뜻을 바꾸어 동남아선교를 위하여 연구·기도하던 중 당회는 1970년 9월 20일 “그동안 물색중이던 해외선교지로는 「인도네시아」로 정하고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선임된 서만수목사를 파송할 것을 해외복음선교회에서 청원이 있을 시까지 가결의(假決議)하고 앞으로 개최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인준 요청할 것과 임지로 부임할 시까지 약 6개월 동안 본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겸 대학부 지도를 담당하도록 가결”하였고 9월 25일 대구서현 교회에서 열린 본 교단 제55차 총회에서 총회장 김창인목사의 명의의 파송장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교단과 유대를 가지고 있던 국제기구인 R. E. S. (Refrmed Ecumenical Synod)에서 선교사파송 협조요청이 있었다. 이 R. E. S. 에서 셀레베스섬 중부의 토라자마마사교단과 함께 일하도록 연결을 해 주어 1971년 4월 20일에 그들의 정식 초청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에 해외복음선교회가 발족된 지 만 2년 10개월 후인 1971년 9월 9일 서만수선교사 내외는 최초로 해외파송 선교사로 임지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향하여 온 교우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며 떠났다. 서만수선교사는 싱가포르에서 머물며 O. M. F. 선교부주관의 선교사 훈련코스를 1971년 10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받으며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던 중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것은 1971년 12월 30일 21시 30분이었다.

도착한 서만수선교사는 우리의 선교지인 마마사교단을 답사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정부에 한국선교부의 재단법인 등록을 마쳐 선교지 정착에 힘을쓰며 선교 본부를 자카르타시에 정하고 1971년 7월에는 자카르타에 한국인 연합교회를 설립하고, 10월에는 제 2차 선교지 순회를 하며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정으로 활동했다.



〈1968년 청년부의 선교부흥회의 한 장면〉



〈복음에 굶주린 저 눈망울들을... 인도네시아〉

또한 72년 10월에는 토라자마마사교단이 있는 마카사지방에 한국선교부의 마카사지부를 개설하고 인도네시아인을 채용하여 선교부일을 보게 하며 인도네시아선교의 정착을 위한 착실한 발걸음을 계속했다. 그러나 우리의 초청교단인 토라자 마마사교단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1973년 10월 30일 그들과 관계를 끊고 시물아샤트신 학교와 스폰서 갱신을 하는 어려움도 뒤 따랐다.

1974년 3월 14일 선교정책협의를 위해 잠시 귀국했던 서만수선교사는 곧 임지로 돌아가 선교관 건립을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75년 6월 19일에 기공한 선교관은 1970년 5월 29일 완공되어 1976년 10월 25일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현지에서 선교관 개관 예배를 감격속에 드리게 되었으니 이는 한국 해외선교 역사상 최초의 한국선교관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선교사상 처음으로 피선교지에 선교관을 건립한 인도네시아는 정글선교사의 특수한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만수선교사의 신념있는 선교철학과 열정으로 다져진 활동이 뒷받침 되어 확고한 선교기반을 굳히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원주민을 책임자로 세워 장학금을 주고 신학훈련을 시켜 복음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자카르타에 있는 선교본부를 중심으로 8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각 지부에서 활동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 본부에서는 필요한 곳에 순

회전도를 나가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피선교지에 성경을 보급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 지부를 확대할 계획이고 이것이 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지기를 계획중이다. 그러기 위해 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재력이 문제이고 또한 보다 높은 신학적 수업을 위해 한국으로 현지인을 유학보내는 일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인 것이다. 인도네시아선교는 이제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선교해야 할 대상이 많다. 더욱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에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집사

인도네시아에 이어 제 2 선교지로 일본을 정하고 당회는 1974년 8월 25일 홍종만목사를 일본선교사로 결정하여 제 5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인준을 얻어 일본선교사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에 있는 재일대한기독교 총회의 초청을 받아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1975년 3월에 일본 하관에 있는 한인교회를 임지로 정하고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 비자 발급이 지연되며 입국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처럼 일본선교의 문이 막히게 되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에 공식 입국자가 60만에 비해 한인교회는 30여개처 뿐, 일본선교는 긴박한 것이다. 일본선교의 문이 막혀 신중히 검토하며 연



〈평신도 선교사 유병세 집사의 대합실전도〉

구하던 중 우리교회의 집사이며 외과전문의로 의학박사인 유병세집사가 일본정부의 청빙을 받아 홋카이도 히로오에 있는 시립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교회에서는 유병세집사를 평신도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 3월31일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위촉장을 전달하고 4월 1일에는 훈련을 받고 4월30일 임시로 출발하게 되었다.

유병세집사는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틈나는 대로 환자전도, 병원직원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대합실등 기회가 생기는 대로 전도하여 결신자도 많이 생기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외협력관계도 활발하여 미국 메노나이트교단 소속의 브라사 선교사 내외와 친교를 맺고 같이 협력 선교를 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정식선교사를 받지 않고 있는 나라가 많기에 이처럼 평신도선교사의 파송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평신도 선교사를 보다 자유롭게 그들이 처한 직업에 종사하며 선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연호선교사 아랍지역으로

일본에 평신도 선교사로 교제 파송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물색하던 중 홍콩지역과 홍콩에 있는 교인들이 수차에 걸친 요청에 따라 당회는 1976년 6월 1일 "선교회장으로부터 홍콩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선교지로 정하고 홍콩에는 홍종만목사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연호전도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달라는 청원에 의하여 당회장으로부터 그간의 교섭경위와 앞으로의 전망을 듣고 심의한 결과 이를 허락하기로 가결"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6년 7월14일(수) 본당에서 총회 선교부 주관의 홍종만·이연호 두 선교사에 대한 파송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연호선교사는 7월19일(월)에 우리교회에서 가진 임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

고 8월6일 선교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대모슬렘선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선교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그곳 현지 사정에 너무나 어두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저한 폐쇄사회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다가 기독교의 이입을 국책으로 막고 있는 나라였다.

이에 이연호선교사는 1976년 9월27일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게 될 비자의 기간이 끝나므로 1977년1월18일 인도네시아를 떠나 태국에 체류하며 계속 모슬렘을 향한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계속 아프리카와 중동의 선교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기도해 온 이연호선교사는 1977년 3월12일 이집트의 카이로로 향했다. 이집트는 다소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이집트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4월10일에는 카이로한인연합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동안 추진해 온 애굽장로회 총회에서 스폰서가 되어 줄 것은 허락하였고 또한 총회 산하 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의 강의를 해 줄 것을 요청 받기까지 하였다.

애굽선교의 길이 어느정도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연호 선교사는 카이로의 아메리칸대학에 입학하여 애굽어를 배우며 보다 확고한 선교기반을 굳히기에



〈카이로에서 알라에게 경배하는 모슬렘교도들〉

노력하고 있다. 1977년 11월에 카이로를 방문한 당 회장 김창인목사는 그곳의 총회 지도자들과 앞으로 선교활동을 협의하여 보다 굳건한 애굽선교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4. 국적불명의 도시 홍콩에도

이연호선교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간것과 발맞추어 홍콩선교사로 부름 받은 홍종만선교사도 본 교우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부인 유영애여사와 3 자녀와 함께 1976년 9월23일 임지로 떠났다.

홍종만선교사는 홍콩 한인교회의 위임목사로 초빙받아 가는 동시에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격으로 선교임무를 띄고 가게 되었다. 세계의 문호인 홍콩은 선교거점으로서 안성맞춤의 곳이며 특히 우리의 염원인 대공산권 선교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데에 그 전략적 가치가 크기도 한 것이었다. 즉 지리적 여건 및 홍콩의 특수상황으로 보아 우리교회의 꿈인 동남아선교 및 중공 나아가 북한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까지를 전망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홍콩한인교회는 여러 교파의 성도들이 모이는 한인교회이어서 많은 잡음과 문제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홍콩만선교사가 부임한 이후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 50여명이 주일 낮에배만 덩그러니 모이던 한인교회가 1년이 못되는 사이에 장년 130여명, 중고등학생이 40여명이 모임으로 사택에서까지도 성경공부를 하며 주일저녁, 수요일에는 물론 구역예배

도 드리고 장년성경공부실시, 부인회를 조직하여 교회 내외의 봉사, 구제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홍콩선교의 목적면에서 볼 때 첫째 홍콩에 늘어나는 한인 교포들의 신앙지도인 것이다. 1978년 3월까지 400세대 이상 1,300여명의 한인들이 상주하고 있고 날마다 수없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도하고 신앙지도를 해서 선교의 발판을 삼는 일. 둘째는 동남아의 중심도시로서 그 특유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선교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것이며, 세째는 중국대륙의 선교에 접근하는 것이다. 전과 달리 최근에 중국대륙의 문이 점차 열리고 있다. 앞으로 수년내에 이문이 넓게 열리리라고 본다.

1978년, 작년부터 중국대륙선교의 전진기지인 홍콩한인교회는 명실상부하게 그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이다. 홍종만선교사가 처음 역점을 둔 것은 홍콩에 기존해 있던 홍콩한인교회의 부흥과 안전을 구축하는 일에 치중해 왔다. 그리하여 현재는 교인수 약 200여명을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서 홍콩주재 한국인 교포들 가운데서 그 위치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다.

홍콩한인교회는 물론, 한국인 학교 운영, 각종공사에 취업중에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전도 사업을 벌이고 있고 나아가서 국내 육군사관학교의 군전도를 위해 재정보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보조등으로 해외선교서업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대륙



〈홍콩의 명물 수상도시 이곳의 사람들도 복음을 모른다〉

■ 선교주일특집 ■

선교를 위한 활동으로는 홍콩내에 있는 복음적인 선교단체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대륙선교를 위해 공동 전선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으며 두드러진 활동으로 현재 중국어판 성경을 중국대륙으로 보내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홍콩만선교사 혼자로는 어렵고 또한 우리의 궁극목표인 중국대륙선교, 나아가 북한선교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원이 보완되어 적극적으로 중국대륙 선교를 위해 일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

5. 평신도선교사 2호 - 아르헨티나에

유병세집사의 일본 평신도선교사를 시작으로 평신도 선교사 파송의 문을 열게 됐는데 이는 정식선교사를 받기를 거부하는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크게 활용되어야 할 제도인 것이다.

유병세집사에 이어 두번째 평신도 선교사로 여의도 구역장으로, 또한 대학부 교사로 수고하던 신동수집사가 사업차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가면서 평신도선교사를 지원해 해외복음선교회의 추천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1976년 11월 7일 주일 저녁예배시임명장을 받고 11월 9일 임지로 출발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7,000명 정도의 한인교포가 거주하고 있고 주로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이고 선교는 5% 정도에 불과한 곳이었다. 평신도선교사 신동수집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재야중앙교회에 출석하여 학생부를 맡아 주일에배 설교와 상담,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며 토요일 오후에는 개인 방문지도, 빈민굴 전도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아르헨티나의 평신도 선교사로 수고하던 신동수집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철수하게 되어 공백상태가 되었지만 다시금 남미의 선교기반 구축을 위해 애쓰던 중 우리교회의 교역자중 1인을 재야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고 당회에서는 백성통목사를 보낼것을 결의함으로 계속되는 남미선교에 끈을 잡게 되었다.

6. 유럽거점을 위해 서독에 파송

인도네시아에 선교관을 건립하고 평신도 선교자로 유병세집사를 일본에 파송하고 이집트에 이연호목사를 홍콩에 홍종만목사를 또한 남미에 평신도 선교사 신동수집사를 파송하는등 1976년은 해외선교에 있어서 숨가쁜 한 해였다.

1976년도 저물어가는 11월 18일 당회는 "금번 당회장목사의 해외 시찰을 통하여 구라파의 중심 지역에 선교사 파송의 의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현재 평택제일교회에 시무하는 육호기목사가 선교목적차 독일에 가는 여권이 나왔으나 후원기관이 없어 출국 보류상태에 있고 또 본인이 본교회 파송선교사를 지원하고



〈서독에서 구역예배의 한 모습〉

있어" 당회에서는 해외복음선교회에 신중검토할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육호기목사의 서독파송을 결정하게 되므로 1976년 12월 15일에 파송예배를 드리고 12월 20일 서독으로 출발하게 되어 우리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4 번째의 선교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서독을 근거한 유럽선교에 손을 뻗침으로 육호기선교사의 활동 여하에 따라 해외선교활동의 무대가 크게 확장되며 또한 보수적인 세계선교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선교전략 수립에서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에 이르기까지 크게 도움이 될것도 아울러 생각하게 된다.

서독에 도착한 육호기선교사는 하이델베르크 한인교회에서 당분간 있다가 프랑크푸르트에 한인교회를 세울 것을 결정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물색했으나 서독에서 선교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우리교회 출신의 김영한박사가 신학연구차 서독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하이델베르크 한인교회에 있고 또한 박용삼집사가 평신도선교사의 사명을 떠고 서독으로 와서 합류함으로 피처에 큰 힘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 집과 교회를 구하지 못하여 한 때는 박용삼집사의 학교 기숙사에 모여 함께 생활하며 앞으로의 선교전략을 짜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금 떨어진 비스바덴의 이집트선교관을 빌어 1957년 5월 8일 예배를 드림으로 비스바덴 한인교회가 시작되었다. 서독의 선교는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중에 큰 문제가 이미 독일 정부교회(전체선교)의 초청을 받은 W. C. 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의 선교사들인 것이다. 쉽게 말해 독일은 선교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타 교회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자유주의라 하여 하나로 되어 있지만 올바른 복음을 따라 믿으려고 하는 교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비스바덴의 한인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육호기선교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계속 기도하며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프랑크푸르트의 한인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니 1977년 10월 22일 재독한인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멜버른 한인교회에서 환영회〉

프랑크푸르트는 서독의 중심이며 나아가서는 유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교회설립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곳이 유럽선교와 공산전선교의 전초기지로 구축할 계획 하에 서독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독에 평신도 선교사도

또한 서독에는 평신도 선교사로 박용삼집사가 파

송되어 한층 활기 띤 가운데 선교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1977년 2월20일 평일 저녁예배시 우리 교회에서 일곱번째로 파송하는 선교사파송예배가 드려졌다. 우리교회에서 평신도선교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영아부부감과 남전도회 지육부장으로 봉사해 온 박용삼집사는 서독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 입학해서 독문학, 및 신학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7. 5 번째의 대륙으로 호주에도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아시아와 대 중공을 위한 홍콩, 유럽의 서독, 아프리카와 중동을 위한 이집트, 남미의 아르헨티나, 일본등 4개 대륙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5 번째의 대륙으로 김태현목사를 호주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태현목사는 호주의 멜버른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는 동시에 우리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김태현선교사는 1978년 11월29일 온 교우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출국하였다. 우리교회가 파송하는 8 번째의 선교사로 또한 새로운 대륙 오세아니아의 선교의 문은 이처럼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설교집 제1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충현교회 출판위원회 편 크라운판 80모조 400면
고급양장 값 3,500원
반 양 장 값 3,000원
총판 / 정음서림 (776-7897)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기다리던, 김창인 목사가 힘차게 외친 서른 일곱편의 설교가 우선 한권의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설교를 한번이라도 들으신 분에게 이 설교집은 지금 막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구입합시다. 친구·친척·친지 또 해외에 계신 성도들에게 선물로 보냅시다.

전국 기독교 서적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목회에 승리를 거두고 제신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이 우리 교계에 나오게 됨은 기쁜 일입니다.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그분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세계 각국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애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경신학자·박윤선 목사)



■ 대중적이면서도 평이한,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늘 역사하였습니다. 그 설교들이 이제 그분이 강단에서 외친 그대로 꾸밈이 없이 문서화되어 나오게 됨은 우리 교계에 참으로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총신대학장 김희보 목사)

해외선교사



새해에도 교회에 계속적인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주에서
선교사 김 태 현
조 남 순
성 호
성 협
종 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 없는 사랑과 지원속에 새해에는 복음사역이 보다 확장되며 열매 맺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서 만 수
정 영 옥



늘 끊임없는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계속 부흥·발전하는 교회와 선교부가 되기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아랍 카이로에서
선교사 이 연 호
김 지 숙
은 혜
지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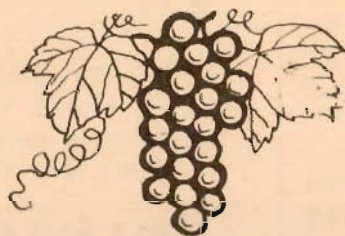
의 새해인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새해에도 선교부와 온
교우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도드립니다.
또한 넘치는 사랑에 감
사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서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이윤호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
혜가 해외복음선교회와 온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의 연구와 평
신도 선교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 주시기 바랍
니다.
서독 튜빙겐에서
평신도선교사 박 용 삼
오 미 자
창 근



님의 크신 축복이 교회와 해외
선교회 위에 충만하옵기를 축
드립니다.
이임없는 기도를 기억합니다.
서독에서
선교사 육 호 기
윤 회 자
혜 진



언제나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만한 은혜가 온 교회와 선교부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콩에서
선교사 홍 종 만 유 영 애 미 라 경 숙

‘멋’

고 제 원

일전에 부산을 내려 갈 일이 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 보았었다. 바깥을 내다 보면서 펼쳐지는 비슷한 광경들에서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다. 한창 주택개량 사업을 벌리고 있는터라 한군데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저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쪽은 현대식 건물이 격에 맞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다.

우리네들이 국민학교때 배웠던 농촌의 풍경일랑 시대가 바뀌어서 자취를 감추는 지는 모르나 한국이 갖는 멋이 전혀 없어졌다. 그 옛날 책에서 읽던 초가삼칸이 이제는 스라브 삼칸으로 바뀌어야 할 형편이니 역겨울 수 밖에. 집단 주거지 형성을 위해 떨어져 있는 주택들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면서 초가를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일은 좋으나 한국다운 멋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다. 농촌은 농촌다운 멋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네들의 신앙도 재검토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옛날 초대교회의 열심과 신앙이 이것이 신자의 멋이었다면 현대화된 오늘날의 열심과 신앙은 농촌의 멋이 사라짐 같이 사라져 가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 보기에만 좋으면 다 좋다는 착각속에서 내용없는 농촌의 주택이 어울리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처럼 겉 번드레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신자들 너무나 격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안타깝기 그 지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실 것이다.

“멋”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오랜 시일이 지나 연륜이 쌓일때 풍기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오랜 시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옛날 풍겨온 멋을 계승하여 더 좋은 향기를 나타내도록 하던가, 아니면 독특한 방법으로 멋을 창조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멋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신자로서의 멋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생각의 시간을 가져 보아야겠다.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여 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게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멋이 아닐까?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1979년은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멋을 마음껏 풍겨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향해 밀알이 되도록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디더 보는 것이 아닐까?

네 집을 예수님께 (새433)

김 중 석 강도사

네 집을 예수님 갖다
그 앞에 내려 놓아라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의 집, 과거의 내가 잘 못해서 지은 죄의 집,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집, 이런 집들 많기도 하다. 올해는 결코 이런 집에 억눌려 허덕일수 없지 않은가? 내 앞에 산적한 일거리들을 생각할 때 마음부터 무거워지는데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집을 저주신다는 음성을 이 찬송에서 듣는다. 생각해 보면 이 집은 누가 지운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툭툭 뭉쳐 지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아무 조건없이 나의 이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우물쭈물 할것 없이 무조건 맡깁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가서
네 마음을 곧 열어서
그 은밀히 보시는 이가
은혜로 갚으시리라

이 찬송을 들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난다. 전에는 덤덤히 불렀으나 이제는 주의 사랑 느끼며 부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다. 사실 모든 짐을 맡기고 나면 이전에 끔찍거리던 것이 어처구니 없이 미련하게 생각된다. 왜 내가 진작 맡겨드리지 않았던가! 라고 말진후에 오는 편안함-이것은 경험자만이 알것 같다.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홀로지고 방황하며 악을 쓰며 살아갈까? 측은한 생각이 든다.

주 예수를 네 친구 삼고
늘 기뻐 동행하여라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이 곤란하지 않게 힘 주시겠다. 얼마나 단순한 표현이면서도 고마운 말씀인가! 이젠 다시 미련둥이가 되지 않을 것이란 맘이 들면서 「네 모든 짐 주님께」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작사자는 헤유티(Eliza Edmunds Hewitt 1851-1920) 여사로서 미국 필라델피아 사람인데 공립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사업에 헌신적인 분이였다.

(성가부 지도)

■ 도서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12월 중 구입한 도서 ■

I. 신학도서

1. 주석류

- 1) 칼빈주석; 구약성서주석 창세기Ⅱ, 칼빈저, 신교출판사간 529 p. 1978
- 2) 렌스키주석; 누가복음(하), 히브리서, 야고보서, 렌스키저, 진연섭역, 백학출판사간

2. 신약

- 1) 예수님의 이적; 트렌치, 리차드저
- 2) 산상보훈; 마이아 프레드릭저, 유화자역 생명의 말씀사간 157 p

3. 강해집

- 1) 박조준목사 신약성서 강해집; ① 마가복음강해(주기도문), ② 누가 복음강해 ③ 공관복음강해-병든자는 나오라, 광풍속에서의 평화, 박조준저, 기독교문사, 1978

4. 기독교윤리

- 1) 자연과학을 통해본 하나님; 몬스마저, 조해수역, 예수교문서선교회간, 1977.
- 2) 현대정신과 기독교적지성; 손봉호저, 성광문화사간, 1978, 418 p

5. 역사

- 1) 이스라엘역사와 종교; G·W 앤더슨 저, 김찬국역, 기독교교회, 1977
- 1) 스필전설교전집; 스필전저, 모문출판사간
① 창세기Ⅱ ② 출애굽기 ③ 레, 민수기 ④ 신명기 ⑤ 시편강해 설교집

7. 교육

- 1) 한국청소년지도총서; 수도권청년지 독자연합회간 1978, 954 p

8. 일반문학

- 1) 성탄성극집; 교회학교교육자연구회편 236 p

II. 가중도서

- 1) 천국의 열쇠; A·J 크로넬 저, 이승우역, 성바오로출판사간, 1978(조순자선생계증-새진자부교사)
- 2) 로마의 평화와 절곡; 정광호저, 총신역사 실험회, 1978
- 3) 앞으로 나아갑시다; 박조준저, 교문사간 1978, (편집실기증)

책 소개

존알라이저·윌리엄스

능력있는 기도

4×6 판 · 460 면

양장 · 2400 원

생명의 말씀사간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과 같기에 기도를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또 한편,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따르기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생활과 승리하는 생활과 기대 이상의 능력있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준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서 기도없이 봉사하거나 기도를 해도 중염불을 하는 식으로 하므로 체험적인 기도 응답의경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를 많이 볼 수 있다.

많은 책들 속에 기도에 관한 글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으로만 기록을 해놓았으나, 본서에는 성경적인 기도 응답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필자 자신이 실제생활에서 일어났던 예화와 실화 등을 소개하고 있기에 독자로 하여금 이 책 읽기를 마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고는 못배길 확신과 충동을 일으켜준다.

책 서문에서 추천자 오스왈드·스미스 목사는 이 책에서 보여준 라이스박사의 기도생활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라이스박사에게 있어서 기도는 실제적이며 행동적이며 마치 수도 꼭지를 틀면 측시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자연스럽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실제로 가치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다. 결과는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였다.

본서는 모두 6부로 되어있으며 1부는 기도의 의미, 2부는 기도의 내용, 3부는 기도의 방법, 4부는 기도의 지속성, 5부는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 6부는 죄와 기도로 되어있다.

79년도 15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교사라고 하면 반드시 읽어야 하며, 그결과 기도하지 않으면 못배기게 되고,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숫적인 부흥이 올 것이며, 새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북한과 공산권에 선교의 폭발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 책의 소개를 쓰고 있는 나 자신도 기도에 관해 이와같이 확신을 주며 생생함을 보여주는 책은 본 일이 없다. 필독하도록 추천한다.

이승근 강도사 (고등부지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개강예배

지난해 부터 준비하여 온 새가정부가 지난 1월 7일 개교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교회의 14번째 주일학교로 문을 열게 되었다. 비록 1979년을 기해 문을 열었지만 그 처음 발상과 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성공적인 성도의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 후 3여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오셨고 따라서 이는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기와 장소 등이 여의치 않아 실시해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금년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성경학원에서는 1977년부터 3, 4차에 걸쳐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과 성과를 올렸고 이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개교를 보게 된 것이다.

약혼한 남녀와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성경을 기초한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 새가정부는 매주일 오후 5-7시까지 당회실에서 모여 집회를 갖는다. 조직에는

지도: 윤영탁목사 부지도: 김경선전도사
부장: 이동규장로 부감: 박성수집사·안인현권사

로 구성되었다. 초대 지도·부장진에서는 새가정부의 1979년도 교육목표를 하나님 중심의 가정, 말씀 중심의 가정, 교회 중심의 가정으로 삼고 시편 128편 1-6절을 주제성구로 삼아 1년동안 이끌어 나갈 것이다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한 교과과정표는



〈지도: 윤영탁목사〉



〈부장: 이동규장로〉

1. 성경강해-호세아·룻기 (13주)
2. 특강
 - 1) 성경적 결혼관 및 가정관 (8주)
 - 2) 한국의 가정제도와 서구의 가정제도 (4주)
 - 3) 결론 (1주)
3. 가족심리학 (10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고부(姑婦)관계·부자관계
4. 가정관리학 (16주)
주택, 영양, 건강, 교양일반, 가정경제, 육아

으로 짜여져 교역자인 윤영탁목사와 부감인 박성수집사(행동과학연구소연구원)가 주로 담당하고 외래강사 및 교회내의 교역자로 강사진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와같은 교과목외에도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위하여 많은 힘을 쓸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인단위의 친교에서 이번 가족단위의 친교로 까지 확장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아부, 새신자부, 노년부, 산업전도교육부등과 같이 이는 또 우리교회만이 생각할 수 있는 독특한 발상이요 시도일 것이다. 새가정부는 개강 첫날 43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장소와 시간 또 회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집회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저녁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

주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모인 첫날의 새가정부는 타 주일학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처럼 가족단위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 신앙으로 뭉쳐진 모범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 대교회로써의 큰 고민인 친교, 교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과 교회속에서 알차게 키워지는 천국 일꾼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1월 7일의 개강예배 모습〉



〈김영휘전도사〉



〈위영환장로〉

주일학교 새가정부와 함께 1979년에 문을 열게 된 주일학교가 있으니 곧 주일학교 선교부이다. 우리 교회가 해외선교를 시작한 지 지난해 1978년이 만 10년째 되는 해가 된다. 지난해 4월 교회설립 25주년과 해외선교 10주년을 기념하며 열렸던 제 1회 총현선교대회에서 선교사 양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물론 이일을 위하여 여러면에서 노력해 왔고 또 망끝까지회에서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선교사 양성을 못 해 오게 된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금년에 새로 신설 개교하게 될 선교부에서 보다 폭 넓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또한 평신도 선교사의 양성문제도 취급하게 됨으로 선교사양성의 기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도 새가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지난해 연말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여 왔다. 장소, 시간 또 교육대상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교육대상으로는 ① 중등부 이상 일반 평신도로서 ② 장자 선교사 혹은 평신도 선교사 지망생이나 ③ 선교의 뜻을 둔 사람들을 포함하였고 또 이들 각각 수준과 정도의 따라서 중등, 고등, 대학·청년, 장년의 4개반으로 반편성을 하게 되며 각 반마다 교과과정을 설정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1. 중등반(1년을 2 학기로 총 6 학기)

- 필수과목: 매학기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으로 선교의 성경적원리, 외국어, 선교사의 자질과 양성등
- 관련과목: 선교사 인물연구, 선교신학의 정립, 교회사등을 매학기 1 과목씩 가르친다.
- 특별강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강좌를 마련한다.

2. 고등반(중등반과 동일하나 수준을 높인다)

3. 대학·청년반(2년은 교과과정에 의거 교육하고 2년은 구체적 준비와 실습)

- 필수과목: 매학기 필수과목으로 선교의 성경적 원리, 외국어, 선교신학의 정립등이다.
- 관련과목: 매학기 1 과목씩 강의하며 그 과목은 교회사, 선교사의 자질과 양성, 현대 선교의 역사, 선교발달사, 이단종파 연구, 교회성장 연구, 비교종교학, 성경해석학등이다.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평일날 모여

3) 특별강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선교의 관한 특별강좌를 마련한다.

4. 장년부(1년에 2 학기로 2 회 모집하여 본교회 남녀 평신로서 해외에 단기 혹은 장기 체류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친다. 다만 성적 우수자들은 심사한 후 교회로 하여금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받도록 추천한다)

- 필수과목: 선교의 성경적 원리, 선교신학의 정립, 개인전도법등이다.
- 관련과목: 선교지 연구와 외국어이다.

평신도 선교사 양성도

이상의 교과과정은 매학기 시험을 실시하여 학점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교과 과정외에도 각반마다 혹은 전체에서 선교지를 연구하여 발표회를 갖고 선교사명의식을 고취하고 영적성장을 위해 수시로 기도회를 갖고 친교를 통해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여름철에 4박5일 정도의 하기선교 훈련을 하고 평일에는 공동생활 훈련을 위해 "선교의 집"을 마련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지난해 전도위원회 외지분과를 담당하고 금년에도 외지분과를 담당할 김영휘전도사가 선교부의 지도역자로, 또한 해외부흥선교회 회장인 위영환장로가 부장, 남선우집사와 안윤진권사가 부감으로 선교부의 처음 출발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다.

앞으로 매주 각 반은 일·목·금요일에 모이게 된다.

① 중등반: 매주 목요일, 오후7~9시 10분, 중등부실

② 고등반: 매주 목요일, 오후7~9시 10분, 청년부실

③ 대학·청년반: 매주 금요일, 오후7~9시 10분, 청년부실

④ 장년부: 매주 일요일, 오후3~5시 10분, 당회실

이제 개교 및 1979년도 제 1 학기 개강예배를 1월 29일(월요일 오후 7시, 유년부실)에 앞두고 있는 신설 선교부는 앞으로 세계적인 선교사양성기관으로까지의 큰 꿈을 안고 많은 참여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기대하고 있다.

충현지를 받을 때마다 물려드는 충현의 모습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1979년에도 우리 충현교회와 충현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양의 잔 뼈가 끊어진 충현교회를 떠난 지도 이제 4년째를 맞게 되니 해가 바뀔 때마다 더욱 고국인, 서울의 거리가 그리고 충현교회의 온갖 모습들이 가슴을 치곤 합니다. 매달 뜨거운 열정속에 모여 서로 간증하고 찬양하며 성경연구를 하던 철야기도회, 수양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일등은 언제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나는 충현교회에서 자랐다는 자랑스러운 느낌을 계속 갖게 합니다. 여행을 해 봐야 집이 좋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충현교회를 떠나고 보니 과연 우리교회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교포들도 “충현교회는 곧 신앙의 산표본이다”라고 말할 합니다. 그것은 충현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가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여실히 들어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씨애틀을 제일 한인교회(담임목사: 김혜성)에 나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늘 충현교회에서 일하던 생각이 나서 여기서도 그처럼 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해외로 왔을 때 초기에 누구나가 큰 문제로 나타내는 교회선택의 문제, 취업, 언어문제등도 이제는 어느정도 해결되니 좀 더 충성되어 주님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또 이곳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매월 잊지 않고 보내주는 월간충현을 볼 때마다 계속 성장, 발전하는 충현교회의 모습을 실감나게 봅니다. 이제 우리 충현교회는 교회내·외와 국내·외로 크게 알려져있고 알려진 그대로 부흥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이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고 현재보다 더 많은 주의 선한 일을 계획,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5대주 6대양으로 뻗어나가는 해외 선교사업과 또한 국내전도로는 농어촌 및 광산촌의 소외 당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보다 실력있고 훈련받은 전도대 파송 및 계속적인 지원 또한 충현교회와 교인들의 내실화를 위한 전교인의 성경연구, 공부의 확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해외교우를 위한 교회의 지원 및 해외 교우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충현교회에서 해외교우를 관장하여 관리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교우들의 교회선택문제는 무척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충현교회에서 정확한 해외교회 정보를 파악하여 언제든지 해외에서도 다른 지방으로 옮길 때마다 안심하고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하여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매달 늘 기다려지는 것은 충현의 소식들을 가득 담은 월간충현입니다. 지난해엔 김목사님의 설교가 요약된 주보도 함께 보내 주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충현지를 받을 때 마다 물려드는 충현의 모습, 모습들이 늘 코끝을 찡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현지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바라는것은 해외교우들과 본교우들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충현지 밖에 없습니다.

계속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도합니다. 충현지를 대할때마다 교회의 새로운 소식과 놀라운 소식들을 대했습니다. 금년에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충현편집실과 온 교회위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 씨애틀에서 권 석 기

주소 : Mr. Suck-Ki Kwon

5640. delridge Wy Sw#107 Seattle WA. 98106
U. S. A.

택시 운전하며 성경 학원을 수료해

1973년 9월 18일 성경학원이 개교한 이래 600여 명의 수료자 (매 학기 수료자의 연인원)가 나오며 이모양 저모양의 일화가 많았지만 12월 17일 1978년도 제 2학기 성경학원 수료식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동을 받게 되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일주일에 3일간을 꾸준히 나와 수료한 현홍식(玄興植) 집사가 있었다.

“성경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네,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고 또한 작년부터 중등부 교사로 임명 받고 보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오는 일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그 시간이 되면 깨우쳐 주시고 또한 맞추어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 께서 시간이 없을 때는 7시까지 겨우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5분정도 지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경학원에서 나오는 과제나 배운 것을 복습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곤란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쓰고 틈만 나면 책을 보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계속 책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1주일에 3일, 그것도 제일 바쁜 시간인 7시부터 9시까지 교회에 나와 공부를 하게되면 수입면에서도 많은 지장을 가져 올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손을 댈 때에 주일을 빼고 최저의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동안 성경학원에 다니면서도 그 금액은 무난히 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만이 보면 시간을 좀 소비하고 또 강의를 듣고 하는 데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금액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무척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 아닙니까? 순간 순간 내 마음속에 울려오는 소리가 ‘조심해야 된다’ ‘서두르면 안된다’고 울려옵니다. 그래서 더



욱 조심하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집사가 우리교회에 온 것은 2년전이다. 시골에서 올라와 새로운 교회를 선정하던 중 여동생의 권유로 우리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곧 우리교회에 나오기로 정하고 장년 새신자부에 등록했다. 시골에서 10여년이상 집사로서 봉직했지만 장년 새신자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 바쁜 중에도 성경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하고 또 택시에 타는 손님들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운전을 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전도를 한다는데... 손님들이 잘 받는 편인가요?”

네, 차에 앉아서 있으면 자기가 싫더라도 들어야 하는데 또 싫은 표정은 하나도 나타내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불교신자인데...’ 하며 의문점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런 가운데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그분들도 고맙다라고 인사하며 내리곤 하지요.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와 위로도 해 주고 합니다.

“요즈음은 성경학원이 방학해서 쉬는데 오늘은 또 제직훈련때문에 나오셨군요?”

네, 세상에 너무 돈만 따라 가다 보니 돈이 판데로 다 흘러 버리고 말아요. 살림에 보탬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안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좇아 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본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집사와 같이 어떻게든지 공부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5학기를 끝 마칠것스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물론이지요”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54 : 1-3

하나님께 구원을 애소함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시54 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을 다니며 쫓박 받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충신으로서 죄 없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으나 그러나 그는 굳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여러번 억울함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라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내 잘한 것이 공로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겠사오니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을 위하여 이 뜻나고 막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한 것이 있다고 자신이 생각한 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호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원수를 갚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원수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할 일만 하면서 기다리려 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인내의 사람이요, 또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힘의 보호를 받으면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3절에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외인은 외국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수이 여기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까닭없이 일어나 죄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외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시54 : 4-7

다윗의 확신과 서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는 말은 천지를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는 뜻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시었고 요셉을 도와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과 권능과 지혜와 풍성한 것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며 염려와 근심 그리고 낙심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 말씀은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 공의와 성실하심으로 원수에게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자기가 꾸민 악을 제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지게 되는 격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하던 간신들, 모르드개와 온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하만을 생각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확신은 첫째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둘째 악인은 자기 악을 그대로 받고야 말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낙심하거나 조급하게 서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을 봅니다.

낙헌제는 기쁨으로 감사에 넘쳐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주일을 지켜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법사에 하나님 앞에서 낙헌제를 드리는 것은 상도의 마땅한 제사입니다. 주의 권능의 보호와 주의 사랑의 섭리로 살고 있사오니 남은 여생은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일생을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바로 살기를 결심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판단에 교만하지 않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제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생활을 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누구앞에서도 자랑하며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악한자들이 심판받는 것도 여러번 보았사오니 나는 하나님께 이 몸 마쳐 바로 살겠습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월간충현 편집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명과 책임

장 철 환 집사

(중등부교사)

소설가 「스코트」가 그의 부인을 동반하여 목장 지대를 거닐고 있을 때의 일이다. 푸른 초원에 하얀 양떼가 흰구름처럼 무리를 이루어 한가롭게, 유유히 풀을 뜯고 있었다.

이 평화롭고 성스럽기까지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던 「스코트」는 그의 부인을 향해 이렇게 감탄했다. “사람이 이처럼 양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군.” 그런데 그의 부인도 그말에 동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요. 연회석상에 나오는 요리(料理) 가운데 양고기 보다 맛있는 것이 어디 있을라구요.”

이 대화는 「스코트」가 뇌(腦)로 생각한 것을 그 부인은 위(胃)로써 이해 했던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스코트」부부 뿐만 아니라, 세상만사는 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즉 직업, 교양, 환경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감상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저 굽이쳐 흐르는 한강물도 어느 사람에겐 자연의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범불가에겐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 대원칙을 범과 더불어 생각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에겐 몇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또한 의학자에게는 깨끗한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 즉 가치가 다르다.

요즘 젊은 세대는 너, 나 없이 「돈」 「출세」 「엔조이」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멋지게 살아 보기 위해 한탕했다.”는 강도가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강도가 대개 20대 전후의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이런 시대 풍조에 영향을 받은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 누구누구가 해외연수교육을 간다는 소문이다. 의외의 선정이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차출됐느냐고 옷상사에게 물었더니, 그분도 미처 몰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심스럽다는 듯이 “다른것없어 기관장 앞에서 아른거리는(수 밖에 없지...)”라고 말을 했더니, 상사 말씀이 “아부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세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부정(否定)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 가며 자기의 욕망을 만족 시키는 부정적(不定的)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

현실사회의 일원으로 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의 생활이, 표면적으로 주위 환경의 많은 요인들로부터, 보다 더 심각한 억압과 저항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저항이지 않겠는가?

우리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선 그들의 사회를 파악하고, 깊숙이 침투하여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실력(① 믿음의 실력 ② 학문의 실력 ③ 전강의 실력)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코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둘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어떤 부정적 부도덕, 그리고 저속한 생활, 혹은 다른 불신자와 같은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셋째, 용기와 인내를 지녀야 한다.

불의를 방관하거나, 덮어주는 것을 신자의 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나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보다는 옳고 그름을 과감히 지적하며 시정케 하는 용기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혜와 재치를 소유하여야 한다.

모든 일에 「창조적인 제안」으로 주위의 잘못됨을 바로 잡아가는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 정신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적에 우리가 목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주교 각부 겨울계절학교

1979년도를 맞으며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겨울계절학교를 계획, 실시하고 있다. 1월 22일 고등부 제 9회 동기수양회를 시작으로 3월 1일까지 계속된다. 예년과 같이 금년도 주로 우리 교회내에서 장소를 정하고 실시하는데 금년의 특색은 각부가 공히 교회내에서 강사를 선정한 점이다. 매년 1월부터 실시되는 주일학교 겨울계절학교는 연초에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1년을 새롭게 계획하며 결심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여름계절학교가 친교, 행사, 등 생활면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겨울계절학교는 말씀중심의 내적충실을 기하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금년엔 9부(어린이 새신자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산업전도 교육부)의 주일학교가 겨울계절학교를 갖는다.

1979년 겨울계절학교 실시계획

구분 부별	회수	기 간	장 소	주 제	주 제 찬 송	주 제 성 구	주강사	참가인원		세출예산
								교사	학생	
새신자(어)	16회	1.29-2.1	본 교회	기쁨의 생활	새 261	빌 4:4	안석렬	20	80	97,400
영 아 부	8회	2.28-3.1	본 교회	어떻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전 14:15-19	김창인	40	230	192,800
유 치 부	10회	2.26-28	본 교회	기쁨의 생활		살전 5:16	한영철	45	270	275,450
유 년 부	16회	1.29-2.1	본 교회	기쁨의 생활	새 261	빌 4:4	김영휘	56	350	373,800
초 등 부	16회	1.29-2.1	본 교회	기쁨의 생활	새 201	빌 4:4	김석원	60	360	357,800
중 등 부	9회	2.26-3.1	본 교회	지금 잠을 뵈 때라	새 198	마25:6	남광호	30	300	388,000
고 등 부	9회	1.22-25	본 교회	확신있는 신앙생활	새 457	고후 13:5	임종만	50	250	350,000
대 학 부	8회	2.19-2.22	본 교회	생명·교제·기쁨	새 439	시 104:33	육한흠	18	220	312,000
산 전 부	2회	1.29-1.30	충현기도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새 413	고후 5:14	김중석	20	80	186,500
계								339	2140	2,533,950

* 새신자(어)는 어린이 새신자부, 산전부는 산업전도 교육부.

주교 지도·부지도 이동

신년도에 임명받은 각부 주일학교의 지도·부지도 교역자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 안은 전임

어린이새신자부지도: 안석렬전도사(초등부부지도)

대학부부지도: 김남수전도사(중등부부지도)

새가정부부지도: 김경진전도사(어린이새신자부지도)

산업전도교육부지도: 김중석강도사(제2성가대지휘)

초등부부지도: 이상원선생(신임)

중등부지도: 남광호전도사(신임)

또한 대학부부감에 정영남집사(고등부교사)를, 초등부부감에 이명자권사 후임에 이신일권사를 각각 임

명했다. 한편 성가부에서는 지금까지 제2성가대 지휘를 맡아 온 김중석강도사가 산업전도 교육부 지도로 가게 됨에 따라 정국진선생을 제2성가대 지휘로 임명했다.



〈남광호전도사〉



〈정국진선생〉

주일학교 구분, 3부로

당회는 현재 주일학교 2부(1부:어린이 새신자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2부:장년 새신자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산업전도교육부)를 각 주일학교의 특성 및 기능을 모아 3부로 개편토록 결정했다.

제1부, 2부 주일학교는 기본적인 과정의 주일학교 체제라면 제3부는 특수과정의 주일학교 과정이 된다. 금년에 새로 신설된 새가정부, 선교부들은 3부에 속하게 된다. 새로 개편된 주일학교 구분은 다음과 같다.

주일학교 1부: 어린이 새신자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5개부>

주일학교 2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장년 새신자부 <7개부>

주일학교 3부: 산업전도교육부, 새가정부, 선교부 <3개부>

또한 지금까지 각부 주일학교에서 각각 제작, 사용하여 온 명찰을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주교 1부는 초록, 주교 2부는 청색, 주교 3부는 오렌지색으로 구분하였다.

중학교 과정반 신설

성경학원은 금년부터 중학교과정반을 신설키로 하고 학생을 모집중에 있다. 집안이 어렵거나 사정상 중학교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중학교과정반은 본교회 등록된 만15세 이상 20세 미만의 교인으로 국민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입학자격을 주게 된다. (다만 타 교회 교인은 본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모집인원 60명의 이 중학교과정반은 성경·국어·영어·국사·수학·주산등의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교사의 기도

오, 주님 내가 교실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 주소서

나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내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에게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주님께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 주소서

주님께 큰 관심이 없는 젊은이를 가슴속에서

내가 이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겠나이다

배반자의 팔팔한 얼굴도 마다 많으신

주님의 그 친절을 나에게도 주시어

가면 뒤에 숨어있는 교독한 영혼을 보게 해 주소서

나에게 주님의 그 인내를 주시어 실패해도 낙심말게 해 주소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완고한 인간들 가운데서 일하다 가신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나이다

나에게 주님의 그 겸손을 주시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해 주소서

나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결코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은 말게 하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나는 어른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들은 나만큼 자제력도 없으며 그 원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 주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해 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같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아오니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때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이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게 될 때에

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때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그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재 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1979년도

단기수련회 모두 마쳐

성경학원이 주관한 1979년도 단기수련회가 연 9일 연인원 4909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마쳤다. 1월 3일 교역자수련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금번 수련회는 각 직분별(교역자, 직원, 장로, 제직 및 권찰, 교사, 성가대원, 전교인)로 모여 수련을 했다는 것이 특색이었다.

특히 수련회를 주관한 성경학원의 성실하고 규모 있는 운영이 수련회를 한층 빛내게 했다. 금번 수련회에서는 출석점검을 철저히 하였고 각 직분별 수련회에 모두 참석, 수료한 사람에게는 1979년도 단기수련회 이수증서를 수여하기도 했다.

매 시간마다 각 직분에 적절한 강사의 강의로 모두 만족한 수련회가 되었다. 특히 1월 8일부터 3일간 열린 부흥회는 기도원의 지도교역자인 한영철목사가 강사로 수고하였는데 연일 본당을 꽉 메운 가운데 실시하여 연초에 우리교회 교인들이 올바르게 사



〈단기수련회중 부흥회〉

는 것을 건립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고 특히나 새 성전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금년의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었다.

백성룡목사 아르헨티나에

10여년을 우리교회에서 시무해 온 백성룡 목사가 오는 3월경 우리교회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아르헨티나의 재아 한인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에 철수한 평신도 선교사 신동수 집사가 선교활동을 하던 곳인데 재아한인 중앙교회에서 우리교회에 요청해 옴으로 결정되어진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 맡아온 구역권찰회회장은 김재창목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28일 당회의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백성룡목사는 곧 출국수속을 마치고 입국사증(비자)이 나오는대로 출국하게 된다.

전임전도사 6명 초빙

당회는 1979년도에 전임전도사 6명(남:3, 여:3)을 초빙키로 결정했다. 남전도사로 김영휘(선교부지도) 김석원(초등부지도), 김수성(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전도사를 여전도사로 김연이(청년부부지도), 김은숙(어린이 새신자부 부지도), 김순옥(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전도사를 각각 초빙키로 했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우리교회의 교육전도사로 혹은 주일학교교사로 봉사해 온 분들이다.



〈김영휘전도사〉



〈김석원전도사〉



〈김수성전도사〉



〈김연이전도사〉



〈김은숙전도사〉



〈김순옥전도사〉

문서심의-각 지회에서

그동안 교회내에서 발행·발간되는 모든 유인물을 심의해 오던 출판위원회가 1979년부터 해체됨에 따라 각 부서의 문서심의는 각 부서의 지도교역자가 하도록 했다. 따라서 유인물을 발간하기를 원하는 부서는 문서발행청원서(지금까지 사용한 서식)를 작성하여 인쇄실에 넘기면 된다. 다만 주일학교는 교육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했다.

출판위원회는 1977년 3월 1일 조직되어 카세트설교 보급, 간행물 심의등의 일을 해 왔고 1978년 11월에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출간하는 등 많은 일을 해왔으나 여러가지 교회 사정으로 해체하게 되었다.

각 지회 총회, 새 임원 선출

지나해 연말과 금년초에 걸쳐 각 지회에서 총회를 열고 1978년의 사업및 예산을 보고하고 신년의 계획을 세우는 등 또 새로운 한해의 준비를 시작했다. 활발하게 움직여 이모양 저모양의 많은 성과를 올렸던 1978년을 마무리 지으며 새로운 해의 새 출발을 위해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다. 각 지회의 총회와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남전도회-회장: 이동규 부회장: 손동운
- 2) 여전도회-회장: 안윤진 부회장: 신군자·노임순
- 3) 권사회-회장: 양정백 부회장: 신군자·김상권
- 4) 산업전도회-회장: 이원철 부회장: 김의철

명찰 사용하기로

당회는 금년부터 교역자, 장로, 권사들은 명찰을 패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점점 팽창일로에 있는 교인들로 인해 교인 상호간에, 제직간에 조차로 교역자·장로, 권사, 집사 등을 잘 모르는 일이 생겨 결례를 하는 등 웃지 못할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됨에 따라 교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에 한해 명찰을 패용토록 하고 명찰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교역자: 백색바탕에 흑색글씨로

장 로: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권 사: 황색바탕에 흑색글씨로

성경학원 중학교과정반

교사 초빙

성경학원에서는 1979년도 부터 모집하는 중학교과정반의 교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과목: 성경·국어·영어·국사·수학·주산
2. 자격: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생(상급학년)으로 위 교과목을 전공한 자
3.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통
4. 제출기간: 1979년 2월 15일까지
5. 제출장소: 성경학원 사무실

총현 성경학원

각종통계

1978. 12. 3 (매주 첫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구	분	남	여	계
집	예배	I 부	158	323	481	예배	I 부	129,730	총세대수 2,979
		II 부	358	907	1,265		II 부	370,335	
		III 부	337	917	1,254		III 부	444,900	
		IV 부	81	182	263		IV 부	96,150	
	주일낮		168	410	578	주일낮		4,798,480	신교인 총수
			91	266	357			565,700	
	새신자	I	25	33	58	새신자	I	779,500	세례입교
		II	8	56	64		II	68,000	
	영아부		126	117	243	영아부		163,000	유아세례
			136	121	257			3,776,506	
	유년부		156	178	334	유년부		1,150,000	유아세례
			160	183	343			5,290	
	초등부		156	139	295	초등부		75,735	학습교인
			162	159	321			4,785	
	고등부		81	86	167	고등부		356,465	원입교인
			61	79	140			49,400	
	장년부		29	265	294	장년부		93,435	원입교인
			23	79	102			61,400	
	노년부		22	92	114	노년부			원입교인
			2,338	4,592	6,930				
	산전교육부					산전교육부			
	계					계		11,745,516	계 1,311

각지회 위원 및 이사인준

전도위원회 조직도 개편

당회는 각 지회의 지회장이 청원한 위원과 이사를 인준하였다. 한편 제직회는 부회계 10명(십일조 헌금담당: 송환창·정운석·서일영·박인세·김재균월정헌금담당: 노문환·김영근 주일헌금(집계): 김정선·김영엽·정광호)을 추가로 임명하였고 또한 감사위원(위원장: 윤종순장로)에 황기성·오택희장로, 송영섭집사를 추가 임명하였다. 인준된 각 의원및 이사는 다음과 같다.

1979년을 맞으며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석주장로)는 각 분과조직에 지도세를 보완하여 금년도의 전도 활동이 매우 활기차게 움직일 것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전도위원회 전담 지도교역자가 1명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각 분과에 지도교역자가 보완되어 전도 위원회에 총 6명의 지도교역자가 수고하게 되었다.

1.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창인목사)

위원: 송순일·한명옥·황기성·위영환·김기정·최석주·이응선·김종석장로 <이상 8명>

2. 전도위원회(지도: 김종택목사, 위원장: 최석주장로)

지도기획: 이준교강도사

내지분과지도: 한영철목사

외지분과지도: 김영휘전도사

특수분과지도: 이성봉목사

총동원분과지도: 이양우전도사

서기: 손동운집사 회계: 조성행집사

기획분과: 김창배장로, 김천채집사, 장주영선생

내지분과: 이동규 김차생장로, 안윤진권사 손경수집사

외지분과: 위영환장로, 신동수·엄필성집사

특수분과: 이원철·조선근장로, 최상규·노문환집사

총동원분과: 김의철·지금산장로, 김광신집사, 박찬섭선생

3.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상우목사)

총무국장: 황기성장로, 서기: 김종석장로

부서기: 신영대장로, 회계: 이응선장로

위원: 김재창목사, 이승근·윤형철·김종석·이준교강도사, 김영휘·김석원전도사, 황기성·위영환·김한홀·이동규·이응선·박창수·윤용규·홍중섭·김종석·한경일·김영개·윤명식·김의철·신영대·김차생장로, 서동석·차신득·고제원·정은표집사 <이상 27명>

4. 재정위원회(위원장: 윤종순장로)

위원: 이응선·한경일장로, 오정현·우기전·김영남·문옥순·박치민집사, 정봉조권사

<이상 8명>

5.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기정장로)

서기: 오진국집사 회계: 이병학집사

위원: 우성원·위영환·임광식·최석주·한경일장로, 안윤진·정선화·이옥녀·오택희명권사, 이창업·노광현·백영희집사 <이상 14명>

6. 장학위원회(위원장: 조현명장로)

위원: 송순일·한명옥·황기성·김기정·윤용규·김종석장로 <이상 6명>

7. 동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석배장로)

위원: 우성원·한명옥·위영환·윤종성·김창배·김방진장로, 나화봉·윤순녀권사 <이상 8명>

8. 기도원관리위원회(지도: 한영철목사, 위원장: 이원철장로)

위원: 우성원·김한홀·오택희·최성림·김의철장로, 노광현집사 <이상 6명>

9. 성경학원(지도: 이준교강도사 원감: 김차생장로)

이사: 최석주·조현명·윤용규·한경일·김의철·김은호장로, 김상순·이춘식권사

감사: 송순일·윤종순장로

10. 월간충현편집위원회(지도: 정상우목사, 위원장: 조현명장로)

위원: 이준교·윤형철강도사, 조선근·김차생장로, 이사래권사, 손경수·이형수·오택용·고제원집사

주간: 이준교강도사 편집국장: 이형수집사

간사: 오택용, 고제원집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 58 절>

입신은 성경적인가?

인간의 장난인 거짓된 행위

김 하 진 목사
(부목사)

질문 / 입신이란 성경적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인지요?

한마디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못됩니다. 이것은 우상종교에서 나온 말이며 또 그들의 신앙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계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들 주변에서도 가끔 찾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그 시비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인간의 권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권위에 따르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고 거짓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입신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장난에 의한 거짓된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 믿는 성도는 참 입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입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행동이며 거짓 영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입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입신이라는 것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 “세째하늘”에 간 체험(고후 12:2)이 있는데 그것은 입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간것은 뜻밖에 한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것을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후 12:5)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후 12:2~3)

그러나 현재 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장려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이 임의로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입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하여 공작되어지는 거짓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신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신플라톤학과(Neoplatonism)에서 주장한 것으로 범신론(汎神論)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고전 1:30)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원하는 대로 어떤 공작에 의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돌입하는 일이 가능한 듯이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우리속에 들어 와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데 무슨 다른 입신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각자 사명에 더욱 더 힘써 충성한 것입니다.



1 월의 행사



3~12 일	단기수련회 (교역자 · 장로 · 직원 · 제직 및 권찰 · 부흥회 · 교사 · 성가대원)	19 일	교역자 · 장로철야기도회
7 일	정기제직회 · 남전도회임원회 · 산업전도회 총회 속회 · 재정위원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월례회 새가정부 개교예배	21 일	여전도회총회 속회 · 재정위원회 · 해외복음 선교회 실행위원회
9 일	여전도회 임원회	22~25 일	고등부동기 수양회
10 일	교회철야기도회	22 일	교육위원회 월례회의
14 일	대학부현신예배 남전도회 · 권사회 · 총회속회 대학입시준비기도회	23 일	특별권찰회의
17 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24 일	권사회 철야기도
		25 일	전도위원회 월례회의
		28 일	해외복음선교회 헌신예배 구역권찰회 월례회
		29 일	선교부개교예배

편집하고 나서

*...여언 월간총현이 나온지도 금년들어 7년째를 맞는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발간되어 이 세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 모두가 인식 하게 되니 기쁜 마음과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 선다. 집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관심속에서 커 오게 되니 감사할 마음금할 길이 없다.

이제 1979년을 맞아 교회내 · 외의 많고 어려운 문제를 짊어 놓고 월간총현도 보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금년을 맞는다. 당회장 김목사님의 신년도

의 계획중에서도 이야기 됐듯이 서야를 넓혀 '우리'를 확인하는 일들이 월간총현의 금년 목표가 될 것이다.

*...금년도 우리는 우리교회의 중요한 일들 곧 해외 선교, 국내전도, 주일학교 교육등과 함께 새성전 건축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쳐 참여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각자가 철저한 믿음으로 주님앞에 헌신 ·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지도 / 정상우 편집위원장 / 조현명
서기 / 고제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이준교 윤행철 조전근
김차생 이사래 손경수 오태용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제원

월 간 총 현

1 월호

제 7 권 통권 제 61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1월 28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6-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67-9937 · 973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오늘의 우리기도

1. 금년에는 우리의 모든 힘을 새성전 건축에 쏟기를 원합니다. 하루 속히 아름다운 성전을 이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 애굽의 이연호 선교사, 서독의 육호기·박용삼 선교사, 호주의 김태현 선교사 일본의 유병세 선교사의 모든 복음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도 합니다. 이북에 있는 우리동포들, 무너진 제단들을 하루속히 일으켜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3. 우리교회의 모든교역자들에게 감정의 영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 본 교인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영육간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4. 장로와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성가대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직책에 충성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5. 15부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명실공히 천국일군으로 키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세워 주옵소서.
6.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움 받은 주님의 종들과 한국 모든 교회들을 추복하시사 5천만 우리 겨레가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은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게 하옵시고 우리나라 산업의 계속적인 부흥 발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7. 공산치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과 세계의 모든 교회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산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갇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자유전영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하루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당하게 하옵소서.

1 월의 특별 기도제목

1. 올해도 온 세계와 이 민족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올해도 맘흘려 충성한 제직·권찰·주교교사·성가대원 작 기관 및 지회의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329명의 만 70세 이상되시는 노인들을 심방하는 노인심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 28일 실시되는 선교주일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 23일 실시되는 구역권찰회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박창수장로님의 아들 박동완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 한양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중인 오중락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역을 통해 기도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충현**

'79 **1**월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